

스페인어의 존재 구문에 관한 연구*

서소영
(전북대학교)

Seo, SoYoung. 2009. A Study on the existential construction in Spanish.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7(4). 125-141. One of the most common verbs in Spanish is HABER that use different ways from the other Spanish verbs in various aspects. One peculiarity of the existential verb HABER is that it has a unique conjugated form (in the 3 singular) HAY (the present tense conjugation of the verb HABER) that means both "there is" and "there are." Compared with other Spanish verbs (existential), the verb HABER only uses the morpheme Y in the present. Like the existential construction in French, the verb HABER does not agree with the Associate. According to Hornstein, Rosen & Uriagereka (1994), in these constructions exist the semantic ambiguity. However, the constructions with the verb ESTAR in Spanish do not show this ambigu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ptively analyze the typical properties of sentences with the verb HABER, and to suggest a revised analysis of the constructions mentioned. In this study, I propose that the existential verb HABER and the copula SER are derived from the same construction. And I suppose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verb HABER and the copula SER lies in the properties of the Predicate. In the concrete, the existential verb HABER contains the process of the incorporation (of the morpheme Y) to the head Cop(ula).

Key Words: the existential verb HABER, the morpheme Y, the copula SER, the Predicate.

1. 서론 및 목적

학생들에게 스페인어 문법을 강의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법 현상 중에 하나

* 이 논문은 2009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로 존재 동사 *haber* 구문을 들 수 있다. 이 존재 동사의 경우 주어와의 동사 변화 일치에 있어서 다른 동사들로부터 확연히 구별되며 의미적으로도 이중성을 보임으로써 영어의 *be* 동사에 해당되는 *ser/ estar* 동사와 구별되기 때문이다.

스페인어의 *haber* 동사 구문에 해당되는 영어의 *There*-구문은 생성 문법 내에서 새롭게 연구되어 왔다 (Chomsky 1989, 1998). 이러한 연구들에서 허사 *There*는 확대투사원리를 만족해주는 삽입 요소로 혹은 D-자질의 발현 등으로 정의되어 왔다. 즉 반드시 외현적 주어를 필요로 하는 영어와 같은 언어의 경우 허사 *There*는 주어 위치를 채우기 위해 등장하는 요소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 내에서 볼 때 주어 생략이 가능한 영주어 (null subject) 언어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존재 구문의 경우 영어의 *There*와 같은 허사는 출현하지 않는데 이는 D-자질의 속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사적 연구는 스페인어 *haber* 동사의 활용 변화형에 관한 또 다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인지되는 바대로 스페인어의 다른 모든 동사들과 달리 존재 동사 *haber*는 주어 인칭에 관한 활용형을 지니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1, 2 인칭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직설법 현재, 과거, 미래 형 등에서 다른 일반 동사 형태로부터 확연히 구별된다. 또한 ‘소유/ 존재’ 등 의미적 이중성을 수반함으로써 *estar* 동사와 통사적, 의미적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우리는 ‘소유/ 존재’ 의미적 이중성을 내포하며 인칭 변화하지 않는 스페인어 존재 동사 *haber* 구문을 통사적, 의미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1.1 스페인어 존재 동사 *haber* 구문의 통사적, 의미적 특징

스페인어 존재 동사 *haber* 동사는 크게 다음과 같은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먼저, 스페인어 동사들, 즉 -ar로 끝나는 1변화 동사, -er로 끝나는 2변화 동사, -ir로 끝나는 3 변화형 동사들이 인칭 변화에 따른 활용 변화형을 지니는 것과 달리 존재 의미로 사용되는 *haber* 동사는 주어와 인칭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temer*와 같은 2변화 동사 혹은 일반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haber* 동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활용 변화형을 지닌다.

- (1) (직설법 현재) *temer* ‘(to) fear’
 tem-o (1인칭 단수) tem-es (2인칭 단수) tem-e (3인칭 단수)
 tem-emos (1인칭 복수) tem-éis (2인칭 복수) tem-en (3인칭 복수)
- (2) (직설법 부정과거) *temer*
 tem-í (1인칭 단수) tem-iste (2인칭 단수) tem-ió (3인칭 단수)
 tem-imos (1인칭 복수) tem-isteis (2인칭 복수) tem-ieron (3인칭 복수)
- (3) (직설법 불완료 과거) *temer*

- tem-ía (1인칭 단수) tem-ías (2인칭 단수) tem-ía (3인칭 단수)
 tem-íamos (1인칭 복수) tem-íais (2인칭 복수) tem-ían (3인칭 복수)
- (4) (직설법 단순미래) temer
 temer-é (1인칭 단수) temer-ás (2인칭 단수) temer-á (3인칭 단수)
 temer-emos (1인칭 복수) temer-éis (2인칭 복수) temer-án (3인칭 복수)
- (5) (직설법 현재) haber '(to catch)', 조동사 'have'
 he (1인칭 단수) has (2인칭 단수) ha (3인칭 단수)
 hemos (1인칭 복수) habéis (2인칭 복수) han (3인칭 복수)
- (6) (직설법 부정과거) haber
 hube (1인칭 단수) hubiste (2인칭 단수) hubo (3인칭 단수)
 hubimos (1인칭 복수) hubisteis (2인칭 복수) hubieron (3인칭 복수)
- (7) (직설법 불완료 과거) haber
 hab-ía (1인칭 단수) hab-ías (2인칭 단수) hab-ía (3인칭 단수)
 hab-íamos (1인칭 복수) hab-íais (2인칭 복수) hab-ían (3인칭 복수)
- (8) (직설법 단순미래) haber
 habré (1인칭 단수) habrás (2인칭 단수) habrá (3인칭 단수)
 habremos (1인칭 복수) habréis (2인칭 복수) habrán (3인칭 복수)

위 자료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어미 -er로 끝나는 제 2 변화형에 해당되는 *temer* 동사, 일반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haber* 동사의 경우 각각의 시제, 인칭에 따라 (1-8)과 같이 변화한다. 그러나 존재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위 *haber* 동사의 모든 변화형이 적용되지 않는다. 스페인어의 모든 동사들 가운데 유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9) a. Hay una silla en la habitación. (직설법 현재 구문)
 '(There) is a seat in the room'
 b. Hay unas sillas en la habitación. '(There) is seats in the room'
- (10) a. Hubo una reacción.. (직설법 부정과거 구문)
 '(There) was a reaction'
 b. Hubo varias reacciones. '(There) was reactions'
- (11) a. había un gato en la mesa. (직설법 불완료 구문)
 '(There) was a cat in the table'
 b. había dos gatos en la mesa. '(There) was two cats in the table'
- (12) a. habrá algún cambio. (직설법 단순미래 구문)
 '(There) will be some change'

b. *habrá algunos cambios.* '(There) will be some changes'

예문 (9-12)에서 볼 수 있듯이,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간에 *haber* 존재 동사는 3인칭 단수 형태만을 취한다. 즉 다른 인칭, 예를 들어, 1인칭, 2인칭에는 존재 동사 *haber* 구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13) a. **Habíamos sólo seis de los diez citados.*

'(There) were only six of the ten aforementioned'

b. *Estábamos sólo seis de los diez citados.*

'(There) were only six of the ten aforementioned'

위 예문 (13)에서 볼 수 있듯이, *haber* 동사 1인칭 복수 형태는 존재 구문에 사용될 수 없는 반면 존재 동사 *estar* 동사는 사용 가능하다. 영어의 *be* 동사는 스페인어의 경우 두 가지 형태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ser* 동사와 *estar* 동사가 이에 해당된다. *estar/ser* 동사 의미에 관하여 RAE (1973, 366-367)에서 지적되었듯이, *estar* 동사는 "실제상의 변화, 개체로서의 자질"을 나타내는 반면 *ser* 동사는 "이동이나 변화와는 무관한 자질"을 표현한다. 이를 Carlson (1977)의 영구적 층위 (Individual-Level) 술부와 일시적 층위 (Stage-Level) 술부 개념으로 구별해보면 *estar* 동사의 경우 후자에 해당되며 *ser* 동사의 경우는 전자에 상응한다. 이러한 상 (Aspect) 개념에서 *estar* 동사는, 예문 (13b)에서 볼 수 있듯이, 장소의 의미 역시 내포한다. 의미적 측면에서 *estar*, *haber* 동사는 모두 장소를 나타낸다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통사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가장 주된 차이점으로서 한정성 효과를 들 수 있다.

(14) a. *¿Dónde están mis llaves?* 'Where are my keys'

b. **¿Dónde hay mis llaves?* 'Where is my keys'

예문 (14)에서 볼 수 있듯이 *estar* 동사는 한정성을 수반한 주어에 허용하는 반면 *haber* 동사는 이를 수반할 수 없다.

존재 동사 *haber* 구문이 수반하는 의미적 특징으로 '소유' / '존재'의 의미적 이중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 예문들에서 *estar* 동사와 *haber* 동사 구문의 의미적 속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a. *El motor está en el coche.* 'The motor is in the car'

b. *Hay un motor en el coche.* '(There) is a motor in the car'

예문 (15a)에서와 같이, ‘장소’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estar* 동사는 또한 존재 동사 *haber* 구문으로부터 의미적으로 구별된다. 예문 (15a)는 ‘엔진이 차에 있다’는 ‘장소’의 의미로만 사용되는 반면 예문 (15b)의 경우 ‘엔진이 차에 있다’는 ‘존재’ 의미와 더불어 ‘차가 엔진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유’의 의미를 수반한다. 구체적으로, *estar* 동사는 ‘일시적 상태나 장소’ 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며, Hornstein, Rosen & Uriagereka (1994) 등이 연구한 존재 구문의 이중적 해석 (‘존재’/‘소유’)은 결여한다. 즉, *estar* 동사는 존재 구문에서는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소유 구문에는 도입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어의 *haber* 구문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통사적, 의미적 속성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의 제안들을 가정한다.

2. 스페인어 존재 동사 *haber* 구문에 관한 새로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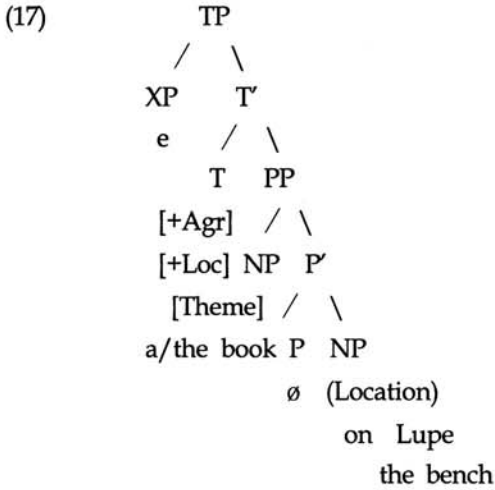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스페인어의 존재 동사 *haber*는 형태적인 면에서도 다른 일반 동사와 다르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존재’/‘소유’ 등 의미적 이중성을 지님으로써 *estar*와 같은 존재 동사로부터 구별된다. 이러한 특징들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Freeze (1992)가 제시한 존재, 장소, 소유 구문들의 파생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장소’/‘존재’/‘소유’ 구문 파생 과정

Bach (1967)가 영어 *have* 동사를, 그리고 Guéron (1986)이 불어 *avoir* 동사를 *be/être*와 같은 일종의 계사 형태로 분석한 이래 최근 문법 연구들에서 *have/avoir*에 상응하는 소유 동사는 존재 동사 *be*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어왔다. 예를 들어, Freeze (1992)와 Kayne (1993, 1994)이 가정한 소유 구문 분석 관점 하에서 볼 때 소유 구문과 존재 구문 간에는 일련의 병행관계가 설정된다.

구체적으로 Freeze (1992)는 영어의 *have*에 상응하는 소유 동사가 결여됨으로써 존재 *be*에 해당하는 동사를 사용하여 소유를 표현하는 여러 언어자료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다음 세 종류의 문장들은 동일 구조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 (16) a. The book is on the bench.
 b. There is a book on the bench.
 c. Lupe has a book. (Freeze, 1992, p.553).



소유 구문이 (17) 구조를 통해 파생된다는 관점은 존재 *be*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소유문을 표현하는 대표적 언어인 다음의 인도어 자료들에 근거한다.

- (18) a. Māi hindustaan-mëë thaa.
 'I India-in Cop-1sg-masc-past' "I was in India"
- b. Kamree-mëë aadmii hai.
 'room-in man Cop-3sg-masc-pres'
 "There is a man in the room"
- c. Larkee-kee paas kuttaa hai.
 'boy-obl-GEN proximity dog Cop-3sg-masc-pres'
 "The boy has a dog"
- (Freeze, 1992, pp.555, 576)

예문 (18)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어에서는 *have* 대신 존재 *be*에 해당되는 동사가 소유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도입된다. Freeze는 (18)의 예문들을 통해서, 장소를 나타내는 문, 존재문 그리고 소유문은 모두 동일한 구조에서 파생된다는 점을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 내에서, '장소'와 '존재/소유' 등의 해석상 차이는 파생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장소문에서 Theme이 주어 위치로 이동, 장소 문이 도출되는 반면, 존재문이나 소유문에서는 존재를 나타내는 명사구나 소유자가 인상함으로써 관련 문장들이 파생된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결과적으로, Lyons (1967, 1968)나 Guéron (1986, 1992)이 제안한

바대로, 소유문의 소유자는 일종의 '장소 논항'에 해당된다. 이때 도입된 계사, 구체적으로 존재 *be*, 에 관하여 Freeze는 근본적으로 계사에 관한 Moro (1991, 1993)의 분석과 다소 유사한 입장을 취하면서, 이를 기능핵 T의 자질들의 발현으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예문 (18a, b, c)에서 계사 *be*, 소유동사 *have*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현되는가? 이와 같은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Freeze는 다음의 가정을 제시한다. (18)의 세 문장에서 장소 전치사는 *on the bench*에서와 같이 외현적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소유 구문 (18c)에 서처럼 형태적으로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18a, b)와 같은 문장들에서 계사는 *be*로 실현되어 나타나는 반면, (18c) 문에서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장소 전치사 P는 대격 점점을 위해 T에 인상, 부가된다. 이와 같이 부가된 장소 전치사를 내포하는 계사는 *have*로 발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관점을 스페인어에 적용해볼 때, Freeze의 예문 (16) 즉, 장소문, 존재문, 소유문은 다음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

- (19) a. El libro está en el banco.
 b. Hay un libro en el banco.
 c. Lupe tiene un libro.

Freeze의 관점을 따를 때 위 세 문장은 동일 구조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장소문에서는 Theme에 해당하는 *El libro*가 주어 위치로 이동하는 반면, 존재문이나 소유문에서는 존재를 나타내는 명사구나 소유자가 인상함으로써 관련 문장들이 파생된다.

그러나 Freeze가 제시한 이와 같은 분석은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다. 먼저, Harley (1996, p.27)가 지적한 바대로, Freeze (1992)가 제안한 *have* 동사 분석을 게르어, 스코틀랜드어, 아일랜드어와 같은 언어들에서 발췌한 다음의 자료들에 적용해 볼 때 기술적인 문제점이 제기된다. 인지되는 바대로, 언급한 언어들은 존재 *be* 동사를 통해 소유 구문을 표현하는 경우에 속한다 (다음의 아일랜드어 자료는 (Harley, 1996, p.27)에서 인용한 것임).

- (20) a. Tha a'mhin anns a'phoit.
 'Copula the flour in the pot' "The flour is in the pot"
 b. Tha min anns a'phoit.
 'Copula flour in the pot' "There is flour in the pot"
 c. Tha an peann aig Màiri.
 'Copula the pen in María' "María has the pen"

Freeze에 따르면 '장소, 존재/소유' 등의 해석상의 차이는 파생 과정에서 결정된다. 구체적

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문과 달리, 존재문과 소유 구문에서 존재를 나타내는 명사구와 소유자가 동일하게 이동을 겪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석은 위의 아일랜드어 예문들에 적용해볼 때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 즉, (20)의 예문들이 Freeze가 가정한 구조 내에서 분석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부가적 설명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스페인어 자료를 이에 적용해볼 때, 언급한 Freeze 분석은 몇 가지 문제점을 수반하는데, 예를 들어, *estar* 동사와 달리 존재 동사 *haber*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의미적 이중성을 허락하지 않는지 그리고 존재 구문에서 *haber* 동사는 왜 인칭 변화를 허락하지 않는지에 관해 어떠한 설명도 부여해주지 못한다는 한계성을 지닌다. 결과적으로 영어와 같이 동일 형태의 *be* 동사로 ‘장소, 존재’를 표현하는 경우와 달리 *estar*, *haber* 동사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스페인어 자료들은 다른 각도에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우리는 위 구문들 간에 내적인 파생적, 의미적 차이가 존재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스페인어의 존재 동사 *haber* 구문에 관한 의미적, 통사적 분석

스페인어의 *haber* 동사 구문은 다른 일반 동사들과 달리 인칭 변화를 허용하지 않으므로써 통사적으로 구별되며 ‘장소’ / ‘존재’ 등 의미적 이중성을 수반함으로써 *estar*와 같은 다른 장소 동사와 의미적으로 차이를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스페인어 존재 동사 *haber* 구문의 통사적 특징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서소영 (2004b)에서 우리는 존재 동사 *haber*의 직설법 현재형의 경우에 한해 형식 자질 즉 D-자질의 외현적 발현을 가정했다. 구체적으로, *hay* 동사에서 형태소 *-y*는 기능핵 T의 D-자질 발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보다 일반화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성을 수반한다. 즉 존재 동사 *haber* 구문의 직설법 현재형은 가능하지만 과거, 미래 등 여러 시제에서는 왜 이와 같은 D-자질 발현이 실현되지 않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즉 이러한 연구는 존재 동사 *haber*의 직설법 현재형에 제한된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우리는 다음의 접근 방법들을 새롭게 시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다른 로망스어 특히 불어와 같은 언어들에서와 유사하게 스페인어 존재 동사 *haber* 역시 그 파생 과정에서 외현적 혹은 추상적 장소 자질을 내포한다는 점을 가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정은 근본적으로 존재 동사와 관련하여 라틴어로부터 동일 파생과정을 거친 불어자료들에 근거한다. 구체적으로, 라틴어의 *HABĒRE*, *TENĒRE*, *ESSE*로부터 파생된 동사들은 *to have* (소유 동사), *to have* (완료구문을 유도하는 조동사), *there is* (존재 동사) 개념 등으로 언어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의 경우 *(yo) tengo*, *(yo) he hecho*, *hay* (*TENĒRE*, *HABĒRE*, *HABĒRE*에서 파생), 불어의 경우 *j'ai*, *j'ai fait*, *il y a* (*HABĒRE*, *HABĒRE*, *HABĒRE*에서 파생)로 쓰인다.

이러한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스페인어의 존재 동사 *hay*와 불어의 존재 동사 구문 *il y a*는 모두 동일하게 라틴어 *HABĒRE*에서 파생되었다. 두 구문은 통사적으로 상당히 유사하게 행동함을 볼 수 있는데 관련 예문은 다음과 같다.

- (21) a. Hay un libro en la mesa.
 b. Il y a des chiens dans le jardin.
 EXPL. LOC-CL has-3SG DET dogs in the garden'

두 언어 간의 통사적 차이에 따라, 영주어 언어에 해당되지 않는 불어의 경우 반드시 외현적 허사가 출현하게 되는데 *Il*이 이에 해당된다. 이때 형태소 *y*는 장소 자질에 해당된다. 반면, 영 주어 언어에 해당되는 스페인어 존재 구문의 경우 *Il*과 같은 허사 요소는 결여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불어 존재 구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장소 자질 *y*와 유사하게 스페인어의 직설법 현재형의 경우 다른 동사들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태소 *y* (*ha-y*)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장소 자질 형태를 수반하는 두 구문은 의미적 주어와의 수 일치 관계에서 동일하게 행동함을 볼 수 있다. 관련 예문은 다음과 같다.

- (22) i. Hay un perro en el jardín.
 ii. Hay dos perros en el jardín.
 iii. There is a dog in the garden.
 iv. There are two dogs in the garden.
 v. Il y a un chien dans le jardin.
 vi. Il y a des chiens dans le jardin.

위 예문 (22)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의 경우 존재 동사 *be*는 후치한 의미상의 주어와 수 일치를 이룬다. 반면 스페인어, 불어와 같은 언어들에서 존재 동사는 의미상의 주어와 수에 있어서 일치를 이루지 않는다. 즉 의미상의 주어가 단수이든 복수이든 간에 *Il y a* 혹은 *hay* 형태만을 취한다. 관련 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3) a. Il y a des chiens dans le jardin.
 'EXPL. LOC-CL has-3SG the-PART-PL dogs in the garden'
 "There are dogs in the garden"
 b. *Il y ont des chiens dans le jardin.
 'EXPL. LOC-CL has-3PL the-PART-PL dogs in the garden'
 "There are dogs in the garden"

이와 같은 자료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우리는 불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어의 존재 동사 구문에 외현적 혹은 추상적 형태로 장소 자질 *-y*가 설정된다는 점을 가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형태소 *-y*는 직설법 현재형에서는 외현적으로 출현하는 반면 과거, 미래 시제 등에서는 형태적으로 보이지 않는 추상적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24) a. Ha-y una silla en la habitación. (직설법 현재 구문)
 b. Ha-y unas sillas en la habitación.
- (25) a. Hub-o una reacción.. (직설법 부정과거 구문)
 b. Hub-o varias reacciones.
- (26) a. hab-ía un gato en la mesa. (직설법 불완료 구문)
 b. hab-ía dos gatos en la mesa.
- (27) a. hab-rá algún cambio. (직설법 단순미래 구문)
 b. hab-rá algunos cambios.

시제 구문들 간에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차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스페인어의 *haber* 동사 파생 과정에서 장소 자질과 관련된 형태소가 존재하는데 직설법 현재의 경우 외현적으로 나타나며 다른 시제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시제요소를 지탱하기 위해 어근인 *hab-* 형태가 나타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소 자질 형태소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파생되는가?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페인어의 존재 동사 *haber* 구문 역시 영어의 *be* 동사에 해당되는 일반 계사 구문에서 파생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계사 형태에 외현적 장소 자질 *-y* 혹은 추상적 장소 자질이 부가됨으로써 일반 계사 *ser*와 구별된 *haber* 동사가 파생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미 언급한 바대로 영어의 계사 *be* 동사는 스페인어의 경우 *ser/estar* 동사로 구별된다. 일반 계사형태에 해당되는 *ser* 동사의 경우 최근 생성 문법 내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최근 연구들에서 볼 수 있는 주된 관점은 계사들이 일반 어휘범주로부터 구별되는 일종의 기능범주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은 근본적으로 Den Dikken (1995)의 계사 구문에 대한 분석이나 Moro (1991, 1993)의 가설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계사 구문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 Den Dikken (1995)은 술부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에 계사는, 일반 계사 구문에서와 달리,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도입되는 일종의 기능핵 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제안은 Den Dikken (1995, p.20)에서 발췌한 다음의 영어 자료들에 기초한다.

- (28) a. I consider John (to be) the best candidate.
 b. I consider the best candidate *(to be) Joh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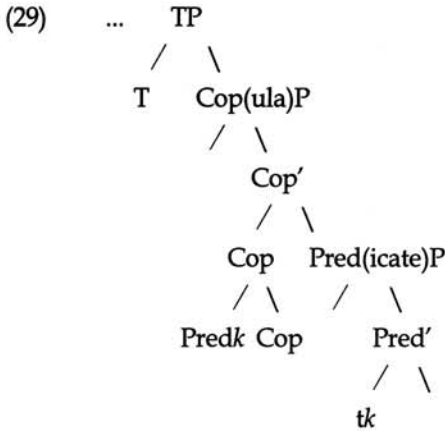
즉, 술부도치가 나타나는 (28b)의 경우 계사는 반드시 형태론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반면 일반 계사 구문인 (28a)에서 계사는 생략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조에 근거해 Den Dikken은, 일반 계사 구문에서와 달리, 술부 명사구가 이동하는 계사 구문에서 계사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도입되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실현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Moro (1991, 1993)는 계사들이 단순히 굴절소 자질들을 위해 나타나는 지탱요소에 불과하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최근 연구들은 기존 분석들 (Ross, 1967, 1969, Williams, 1984)과 달리 계사를 일반적 어휘범주에서부터 구분하려 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en Dikken (1995a)의 분석이나 Moro (1991, 1993)의 제안 역시 일련의 문제점들을 드러낸다. 먼저, 술부 명사구 도치가 일어나는 계사 구문에서 계사는, 일반 계사 구문의 계사로부터 구별되면서, 일종의 기능핵의 음성적 실현으로 이해된다는 Den Dikken의 제안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언어의 술부 도치 계사구문에서 계사는 생략 가능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히브리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의 경우에 계사는 술부 도치 현상과 무관하게 형태론적으로 생략된다.¹⁾ Den Dikken의 주장과 달리, 언급한 언어들의 술부 인상 구문에서 계사는 음성적으로 생략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계사의 음성적 실현 여부가 두 종류의 계사-일반 구문에서의 계사와 술부 도치 구문에서의 계사를 구분 짓는 요인이 된다는 Den Dikken의 견해는 모순점을 드러낸다. 다른 한편으로, 계사를 단순한 굴절소 자질들을 위한 지탱요소로 간주하는 Moro (1991, 1993)의 견해 역시 우리가 계사 구문에서 나타나는 술부 명사구 도치 현상을 자세하게 분석해볼 때 다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러한 Den Dikken 이나 Moro의 제안은 계사의 근본적 속성을 다룬 것이 아니라 통사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계사에 관한 단편적 정의에 불과하다는 한계성을 수반한다.

계사와 관련하여 최근 제시되었던 이러한 분석들 (Den Dikken, 1995, Moro, 1991, 1993)이 지니는 문제점들에 근거해서 본 고에서는 서소영 (1999, 2000)에서 우리가 제안한 계사 *ser*에 관한 정의를 도입하고자 한다. 즉, 계사들의 투사가, Den Dikken이 주장하듯이, 구조적 요인에 제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그리고, Moro (1991, 1993)가 제안한 바대로, 단순한 굴절소 자질을 위한 지탱요소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정하고자 한다. 우리의 근본적 관점은 술부 도치 현상을 보이는 인상 구문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계사 구문에서 나타나는 모든 계사는 문법에서 지금까지 알려져 온 다른 기능투사들과 동일한 속성을 내포하는 일종의 기능범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볼 때 계사 *ser*는 다음의 구조로부터 파생된다.²⁾

1) 예문을 위해서는, Rapoport (1987), Nash (1993)를 참조하시오.

2) Chomsky (1998)의 최소이론 가설에서, 주된 기능범주들은 T(*iempo*), COMP(*lementante*), D(*eterminante*) 그리고 *v(erbo)*에 한정된다. 즉 Conc(*ordancia*)의 제거와 더불어, 최근 생성문법 이론에서 기능범주들은 상당히 간소화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최소주의 가설을 받아들일 때, 계사를 하



계사와 관련된 위 구조를 기본적으로 취하면서 본 연구에서 우리는 *haber* 동사의 경우 외현적 혹은 추상적 장소 자질 (-y)로 이루어진 술부 Pred를 내포한다는 점을 가정하고자 한다. 즉 이러한 관점 내에서 볼 때 *haber* 동사는 외현적 혹은 추상적 장소 자질로 이루어진 술부 Pred의 기능핵 Cop로의 부가 과정을 통해 파생된다. 결과적으로, 일반적 계사 형태인 *ser* 구문과 존재 구문을 유도하는 *haber* 동사 구문 간에 설정되는 의미적, 통사적 차이는 술부 즉 Predicate의 속성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 내에서 스페인어 존재 동사 *haber* 구문에서 내적으로 함축되어있는 의미적 이중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우리는 '존재' / '소유' 두 구문 간에 설정되는 술부의 차이를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다음 일본어 자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존재' / '소유' 해석은 구문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have*에 상응하는 소유 동사를 결여하는 언어에 속하는 다음의 일본어 자료에서 양 구문은 event 자질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속성을 보여준다.

(30) Sora ga aoi. (Stage-Level)

'sky NOM blue'

a. "(iLook!) The sky is blue"

b. "It is the sky that is blue" (Kuno, 1973, p.53)

(31) Tokyo ga ookii. (Individual-Level)

나의 기능범주로 설정하려는 것은 다소 이론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서 소영 (1999, 2000)에서 우리는 위에서 지정한 네 개의 주된 기능범주들 외에, 생성문법사를 따라 다양하게 가정되어 온 SNeg(ación), SAsp(ecto), SM(odo) (Pollock, 1989, Ouhalla, 1990, Laka, 1990) 등과 같이, 계사 역시 독립적 기능범주에 해당된다고 제안한다.

- a. *“(iLook!) Tokyo is big”
 b. “It is Tokyo that is big”. (Ibid)

위의 예문들이 보여주는 바대로, 일본어에서 영구적 층위 (Individual-Level) 술부 주어와 일시적 층위 (Stage-Level) 술부 주어 (Kratzer, 1988 용어)는 주격표시 *ga*와 더불어 상당히 다르게 행동한다. 즉, 예문 (31)에서 볼 수 있듯이 술부가 영구적 층위일 때 주어는 반드시 Focus 해석을 나타낸다. 반면에 일시적 층위일 때는 예문 (30)에서와 같이 의무적으로 Focus 해석을 받지 않는다. Muromatsu (1997)가 지적한 바대로, 이러한 대조를 다음의 소유 구문과 존재 구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 (32) Herikoputaa ga puropera ga aru.
 NOM NOM be
 a. *“(The helicopter has a propeller)”
 b. “It is the helicopter that has a propeller”
- (33) Ringo ga reizooko ni aru.
 apple NOM fridge in be
 a. “An apple is in the fridge”
 b. “It is an apple that is in the fridge”

위의 (32b)의 소유문에서 주격 *ga*로 표시된 주어는 반드시 Focus의 해석을 받아야 하는 반면, (33)의 존재 문에서 주어는 의무적으로 언급한 해석을 나타낼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검증은 우리에게 소유 문 술부는 영구적 층위 술부에 해당되는 반면 존재문 술부는 일시적 층위에 속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위 자료들이 보여주듯이, 존재 구문과 소유 구문은 서로 다른 술부 Predicate를 내포하고 있다.³⁾ 이러한 분석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우리는 *haber* 동사가 내포하는 ‘존재’/ ‘소유’로의 의미적 이중성 내포는 서로 다른 술부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외현적 혹은 추상적 장소 자질의 기능행

3) 소유 구문이 영구적 층위 술부를 내포한다는 이와 같은 분석은 통사적으로도 입증 가능하다. 인지되는 바대로, *tener/have*와 같은 소유 동사가 의미를 지닌 일반 타동사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며 일련의 계사로 정의된다는 관점은 문법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다 (Benveniste, 1966, Bach, 1967, Den Dikken, 1995, 1997, Uriagereka, 1997, Ritter & Rosen, 1991, 1993, 1997). 이와 같은 관점은 기본적으로 *tener/have*와 같은 소유 동사는 의미를 내포하는 일반 타동사로부터 구별되며 소유문내에서 설정되는 의미관계는 소유 동사에서부터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소절 내부의 소유자와 피소유자 간에 설정되는 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Ritter & Rosen (1997), Uriagereka (1997) 등의 관점에 기초한다. 소유 구문들에서 소절을 투사하는 기능 핵은 격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는 Muromatsu (1994, 1997)의 관점을 가정해 볼 때 일반 계사 *ser* 구문에서와 달리 소유 동사 *tener* 문에서 나타나는 대격 요소에 관한 통사적 설명이 가능해진다.

(Copula)으로의 부가 과정을 통해 파생되는 *haber* 동사 구문은 통사적 과정이외의 의미적 단계에서 서로 다른 술부 해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존재’ 해석과 달리 ‘소유’ 해석을 표현하는 경우, 통사적 측면에서 장소 자질이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적으로 보이지 않던 간에, 의미 단계에서 술부는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장소 자질의 약화를 겪으면서 영구적 층위 술부로 전환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⁴⁾ 이와 같은 의미론적 관점은 근본적으로 Escandell-Vidal & M. Leonetti (2002)가 제시한 다음의 의미론적 분석에 기초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haber* 구문의 의미적 이중성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Escandell-Vidal & M. Leonetti (2002)는 근본적으로 영구적 층위 술부가 일시적 층위 술부로 전환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일종의 강제 전환 요소 (*coercion*) 개념에 기인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이때 강제 전환 요소라는 용어는 일련의 문 구성 요소가 지니는 의미적 내용과 동일 구조에서 다른 요소들이 수반하는 요구 조건 간에 발생하게 되는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 준비된 재해석 과정 (*reinterpretation process*)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개념은 다음의 예문을 통해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 (34) a. Suddenly, I knew the answer.
 b. John played the sonata for eight hours.
 (Escandell-Vidal & M. Leonetti 2002, p.8)

예문 (34a)에서, 술부 *know the answer*의 *stative* 속성과 부사 *suddenly* 간에 존재하는 의미적 불일치는 *state*를 *event*로 뒤바뀌 줌으로써 해결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문 (34b)에서 *play the sonata*와 같은 *event* 술부는 시간 부사인 *for eight hours*와 조합되어 나타남으로써 반복의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는 언급한 *event* 술부가 강제 전환 요소로 인해 새롭게 재해석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의미적, 화용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본 고에서 우리는 스페인어 존재 동사 *haber* 구문에서 역시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술부 변화를 겪게 되며 이로 인해 일시적 층위와 영구적 층위 간에 이중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4) 그렇다면 존재 동사 *haber* 구문이 의미적 이중성을 허용하는 반면 스페인어의 장소 구문을 형성하는 *estar* 동사 구문은 왜 언급한 이중성을 허용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언급한 두 동사는 파생되는 파생과정 단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을 가정해볼 수 있다. 스페인어의 대표적 일시적 층위 술부 동사인 *estar* 구문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 *event* 동사와 마찬가지로 *estar* 동사 역시 *event* 핵 구조를 수반한다는 점을 설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어 존재 동사 *haber* 구문에 연구를 제한하기로 한다. *estar* 동사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위해서는 서소영 (2004a)을 참조하시오.

3. 결론

영어의 경우 *Be* 동사 하나로 계사 구문 혹은 존재 구문, 장소 구문 등을 나타낼 수 있지만 스페인어의 경우 각각의 다른 동사들을 통해 이를 표현해준다. 이러한 문법의 다양성으로 인해 처음 스페인어를 접하는 학생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존재 동사 *haber* 구문은 다른 일반 동사와 달리 동사 활용형을 수반하지 않는 등 구문적으로 차이를 보일뿐만 아니라 '존재' / '소유' 등 의미적 이중성을 보임으로써 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난해한 문법 요소로 인지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우리는 다음의 가정들을 제안했다. 먼저, 스페인어의 존재 동사 *haber* 구문 역시 영어의 *be* 동사에 해당되는 계사 구문에서 파생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계사 형태에 외현적 장소 자질 *-y* 혹은 추상적 장소 자질이 부가됨으로써 일반 계사 *ser*와 구별된 *haber* 동사가 파생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haber* 동사가 내포하는 '존재' / '소유'로의 의미적 이중성 내포와 관련해서는 두 해석을 결정짓는 술부 간의 차이를 살펴볼 것을 제안했다. 즉, 외현적 혹은 추상적 장소 자질의 기능핵 (Copula)으로의 부가 과정을 통해 파생되는 *haber* 동사 구문은 통사적 과정이외의 의미적, 화용론적 단계에서 서로 다른 술부 해석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가정했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존재' / '소유' 등의 의미적 이중성은 의미적, 화용론적 단계에서 서로 다른 술부로의 전환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문헌

- 서소영 (1999). *Aproximación minimista al estudio de las diversas formas copulativas: el verbo copulativo SER, el verbo posesivo TENER y la preposición débil D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dad Autónoma de Madrid.
- 서소영 (2000). "계사구문들에서 명사구 이동에 관하여", *서어서문연구*, 16, 71-101.
- 서소영 (2004a). "EVENT 구문의 인지과정에 관한 연구-스페인어 자료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30, 41-68.
- 서소영 (2004b). "Studies of the Movement of the D-feature in Spanish", *언어학*, 12, 239-255.
- Benveniste, E. (1966).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Gallimard.
- Chomsky, N. (1989).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0, 43-74.
- Chomsky, N.(1998). "Minimalist Inquiries",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5, 1-61.
- Den Dikken, M.(1995). "Copulars", *GLOW*, 34, 20-21.
- Den Dikken, M.(1997). "The Syntax of Possession and the Verb HAVE", *Lingua*, 101, pp.129-150.
- Escandell-Vidal, V. & M. Leonetti (2002). "Coercion and the Stage/individual Distinction", J. Gutiérrez-Rexach (ed.), *From Words To Discourse: Trends in Spanish Semantics and Pragmatics*, Oxford, Elsevier.
- Freeze, R. (1992). "Existentials and other Locatives", *Language*, 68, 553-595.
- Guéron, J. (1986). "Le verbe AVOIR", *Recherches Linguistiques de Vincennes*, 14/15, 155-186.
- Guéron, J. (1992): "Types syntaxiques et types sémantiques: La phrase copulative comme PALIMPSESTE", *Revue Québécoise de Linguistique*, 22, 77-114.
- Harley, H. (1996). "Events, Agents and the Interpretation of VP-shells", ms., MIT.
- Hornstein, N. Rosen, S. & Uriagereka, J.(1994). "Integrals", ms., University of Maryland.
- Kratzer, A. (1988). "Stage-Level and Individual-Level Predicates", en E. Bach, A. Kratzer y B. Partee (eds.): *Papers on Quantific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Laka, I. (1990): *Negation in Syntax: on the Nature of Functional Categories and Projections*, Tesis Doctoral, MIT.
- Lyons, J. (1967). "A Note on Possessive, Existential, and Locative Sentences", *Foundations of Language*, 3, 300-396.
- Lyons, J. (1968). "Existence, Location, Possession and Transitivity", In B. van Rootselaar y T.F. Staal(Eds.), *Logic, Methodology, and Philosophy of Science* (pp. 495-509), Amsterdam: North-Holland.
- Moro, A.(1991). "The Raising of Predicates: Copula, Expletives and Existence",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5, 119-181.
- Moro, A.(1993). *I Predicati Nominali e la Struttura della Frase*, Padova: Unipress.
- Muromatsu, K. (1997). "Two Types of Existentials: Evidence from Japanese", *Lingua*, 101, 245-269.
- Nash, L. (1994). "On BE and HAVE in Georgian",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2, pp.153-171.

- Ouhalla, J. (1990). "Sentential Negation, Relativized Minimality and the Aspectual Status of Auxiliaries", *The Linguistic Review*, 7, 183-231.
- Pollock, J.Y. (1989). "Verb Movement, Universal Grammar,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 Inquiry*, 20, 365-424.
- Rapoport, T.R. (1987). *Copular, Nominals and Small Clauses: A Study of Israeli Hebrew*, Tesis Doctoral, MIT.
- Ritter, E. & Rosen, S.T. (1991). "Causative HAVE", *NELS*, 21, 323-336.
- Ritter, E. & Rosen, S.T. (1993). "Deriving Causatio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1, 519-555.
- Ritter, E. Rosen, S.T. (1997). "The Function of HAVE", *Lingua*, 101, 295-321.
- Uriagereka, J. (1997): "From BEING to HAVING: Questions about Ontology from a Kayne/Szabolcsi Syntax", ms., University of Maryland.

서소영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스페인, 중남미 어문학과

전화: (063) 270-3279

이메일: soyoungseo@chonbuk.ac.kr

Received: 22 November, 2008

Revised: 21 October, 2009

Accepted: 17 November, 2009